

# '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장인정신 이어오다

시, 내달 4일까지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보유자 전시회'  
부채·가야금·한지발장 등 전통 수작업 작품 선보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전주시가 부채, 가야금, 한지, 지우산 등 각 분야별 인간문화재들의 숨겨진 면모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 전주시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부속건물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알리고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0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보유자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내공간이 아닌 경기전 내 새재·동재·조병청·전사청 등의 대청마루를 활용해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20명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수십 년 동안의 고집과 정성으로 이어온 무형문화재 작품을 선보인다. 단, 우천시에는 전시가 진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조정형(향토술담그기) ▲고수환(약기장) ▲이의식(웃칠장) ▲최희식(약기장) ▲신우순(단청장) ▲김년임(전통음식) ▲이종덕(방짜유기장) ▲윤규상(우산장) ▲최중순(약기장) ▲최대규(전주나전장) ▲이신임(전주나전장) ▲염재수(선자장) ▲유배근(한지발장) ▲방화선(선자장) ▲김종연(민속목조각장) ▲김해미자(책지공예) ▲김신애(지승장) ▲변경환(배칠장) ▲김한일(야장) ▲박계호(선자

장) 등이 전통 수작업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판소리 등 무형문화재 예능분야 보유자들의 공연도 열 계획이다. 이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열리며 녹화 후 공개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예능분야 보유자 공연에는 ▲조소녀(춘향가) ▲최선(호남살풀이춤) ▲문정근(전라삼현승무) ▲김무철(한량춤) ▲성준숙(적벽가) ▲왕기석(수궁가) ▲이길주(호남산조춤) ▲오종수(시조창) ▲김영희(시조창) ▲이선수(가곡) ▲지성자(가야금산조) ▲박애숙(가야금병창) ▲김소영(수궁가) ▲전라삼현육각·전태준 ▲영산작법·박희영 ▲김광숙(교방무) ▲조용안(판소리장단) ▲모보경(춘향가) 등이 참여해 숙련된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무형문화도시 전주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보유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무형문화를 알리고 그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채만식학회가 주관하는 '작가 채만식 학술 세미나'가 최근 군산시의 후원을 받아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렸다.

## 채만식 문학의 장르·친일 문제 파헤치기

군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채만식학회가 주관하는 '작가 채만식 학술 세미나'가 최근 군산시의 후원을 받아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비대면'을 권유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를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로 중계했다.

이번 세미나는 채만식학회가 세번째로 주관한 것으로, 채만식 문학의 장르 문제와 채만식의 '친일' 문제가 주요 논제로 등장했다.

채만식 문학의 예술적 가치와 탁월한 작가적 역량은 한국문학사에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다. 작가 채만식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그 희생양인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였다.

문학의 장르와 관련, 발표자로 나선 우한용 채만식학회 회장은 채만식의 장르 의식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

### 군산대서 '작가 채만식 학술세미나'

여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일의 과정을 살펴보고 시민의 윤리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반성 자체의 결연함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기억과 정치 사이에서 동요한다는 것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 이 둘이 채만식의 '친일'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시민 의식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채만식을 기념하는 일이 작가의 '친일'을 추종하거나 무시하는 일과는 다르며, 도리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특정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나야 할 윤리적 성숙도를 높이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작가 채만식 학술 세미나'는 유튜브(<http://youtu.be/BhmCK1pW6A>)의 '채만식학회' 계정에서 11월 초에 편집된 풀버전으로 업로드되며, 발표 원고를 개정하고 보완하여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서 '작가 채만식 학술세미나' 상한 스페클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 2016년 역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사례를 들며 작품의 의도와 주제에 따라 장르를 달리했던 채만식의 창작 경향을 살펴보았다.

채만식의 친일과 관련, 류보선 채만식학회 부회장(군산대학교)은 채만식의 친일과 반성 두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했다. 그는 채만식의 갑작스러운 친일에 내포된 동요와 불안함을 읽어낸 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항일'한 작가들의 모범성을 충실히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만식 학술대회에서 다룬 채만식의 '친일'은 그 문제가 '친일'과 '반성',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회', 세 가지 서로 다르면서도 겹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친일을 대상화하

## ICT기술과 소통하자... '퀀텀점프' 작가 발표

전주문화재단, 시각예술가 10인 선정  
25일부터 가상갤러리 온라인 전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0 전주콘텐츠페어 '퀀텀점프'에 전시할 10인의 시각예술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45명의 시각예술가가 신청을 해 이 가운데 ICT기술 융합의 가능성과 예술가의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10명(강현덕, 국영원, 서안호, 송지호, 여은희, 윤미류, 이보영, 장영애, 장우석, 차유림)의 예술가를 뽑았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지원금 각 1백만원이 지급되고, ICT기업과 함께하는 협업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메인 전시 외에도 각 선정 작가의 아틀리에 공간을 3D 스캔해 가상 갤러리 안에 또 하나의 가상 아틀리에 공간이 마련돼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재단은 30일 이들 10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기업과의 매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매칭된 예술가와 기업의 전시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결합해 상호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전시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개최되고, 온라인 전시는 11월 25일부터 가상갤러리에서 상시 전시된다. 온라인 전시는 재단과 전주정

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웹주소를 통해 바로 접속 및 구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공간 3D 스캔을 통해 구축되는 온라인 가상갤러리는 향후 지역의 전시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역 내 예술가의 기술 융·복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전주문화재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예술가의 폭넓은 창작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예술의 새로운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예술과 ICT기술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행사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경미)은 지난 28일 회관 영상실에서 나눔 행사를 마련해 위로용품 전달과 체험, 미술 등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회관은 청소년과 교육가족을 위해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가을 희망(우리 잘하고 있어!!)을 주제로 예정된 문화행사는 오는 31일로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총 3회 일정으로 옛 도심지 우체통 거리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우도 농악 토대로 한 창조적 진법 구성 이색적"

익산 영등1동 농악단, 서동풍물경연대회 대상 수상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17회 서동풍물경연대회에서 영등1동 농악단이 대상을 수상했다.

올연동 풍물경연대회인 서동풍물경연대회는 올해 코로나19 예방과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인 영상공연으로 진행됐다.

총 7개 농악단이 신청하여 23일까지 영상촬영을 마쳤으며 촬영된 영상으로 지난 28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등1동 농악단이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영등1동 농악단은 "단원들 간 기량이 고르고 단체 연기에 충실하며 특히 우도 농악을 기초로 창조적 진법으로 구성됨이 이색적이며 또한 전통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려는 진취적 사고가 주목된다"며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영등1동 농악단 이창남 단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하였으나 서동풍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그동안의 수고와 보람받은 것 같다"며 "내년에는 풍물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풍물을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내달 4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달의 목소리' 무관객 공연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인 허정화(1900~1991)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연극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찾아간다.

전주시와 극단 독립극장은 오는 11월 4일 덕진예술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연극 '달의 목소리'를 무대에 올린다.

'달의 목소리'는 일제와 맞서 싸우며 '한국의 전다르크'라는 칭송을 받은 허정화 여사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주인공 정정화 역에는 배우이자 극단 독립극장 대표인 원영애 씨가 맡는다.

이번 연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객으로 열리며, 덕진예술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공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063-281-66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전기 상담 및 고장 신고는

국번없이 ☎ 123 (한전 고객센터) 으로 전화주세요!

한국전력 순창지사

